

전북도 · 미국 뉴저지주 교류협력 활성화 주목

미국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 등 방한단, 김관영 도지사 예방... 양 지역간 경제 · 문화 등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지난 14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하고 한·미 양 지역간 문화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와 뉴저지주는 농업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 전북은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뉴저지주는 미국 대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포스트'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 기업인 H-Mart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전북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뉴저지주의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14일 도청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 및 한·미 양국간의 문화·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세일즈프리에 나섰을 때 H-Mart 서부지역과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향후 경제통상 상호협력 확대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교류지역 중 하나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2019년 행사 당시 한지로 만든 인형이나 한지 체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방문객에게 나눠준 고추장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한국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인 전북도와의 문화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감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감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에서 생산 가공되는 각종 농식품제품 수출에 대한 협조와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새만금 세계잡버리에 대한 관심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와 미국 뉴저지주는 지난 2000년 자매교류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지역 간 교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9년에는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전북도 대표 공공교교 사업인 '한스타일 전시'를 개최해 한식, 전통음악 등 전라북도의 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간송미술관의 행보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향유할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 세계적인 젊은 미술 팬덤 커뮤니티의 조성이라고 보고,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는 이러한 팬 커뮤니티를 만들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날 2022년 8월 15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한정판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해 화제가 됐다. 100개 한정 발행한 세계 최초의 문화재 기반 NFT다. 이후 조선 3대 풍속화가로 꼽히는 혜원 신윤복의 화첩 '혜원전신첩(국보 135호)'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NFT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이에 연계해 Karsong Metaverse Museum 프로젝트를 시작, 올해는 The Sandbox 메타버스 일파사전에 KMM 게임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훈 기자

“탄소 · 수소 · 첨단바이오 주도, 이차전지 산업 선점 역량 결집”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시설원예농가 피해 최소화 해달라”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탄소·수소산업, 첨단바이오산업은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이차전지 분야까지 선점기 위해 전략적으로 도의 역량을 결집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용기 연료전지 제작 실증사업이 신규 선정됐고 같은 날 과기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의 실용화 원천기술 확보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를 추진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았고 싱가포르의 건물형태가 다채로운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효율성만 따졌던 건축물은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랜드마크화 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의 공공건축물 조성시 설계단계부터 최고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심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랜드마크 추구 원칙을 견지하고 그 출발점은 금융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태 마스터스 공식 후원 협약식. 지난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세브브로이맥주 공식 후원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강삼 대표가 후원 협약식을 갖고 있다.

이러 전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분야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간부들이 각자 내 일처럼 함께 움직여 특화단지를 지정받는 역전의 짜릿함을 느껴보자”며 이차전지 신산업 선점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고창도서관이 유현준 교수의 설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보전달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광과제를 마련하는 등 시설원예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아태마스터스대회 및 세계잡버리와 연계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지원하고, 5월 축제 대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과제 및 마케팅에 도내 문화관광, 숙박, 요식업에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삼아 고도화했다.

이와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팀을 통해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팀을 통해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3 청년 도약프로젝트사업’ 공모

내달 8일 까지 접수 · 청년단체 · 기업 6개팀 선정

청년단체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개발 지원

전북도는 청년단체(기업)의 지속성 유지와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청년단체(기업)를 대상으로 2023년 청년 도약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약프로젝트”는 도내 청년단체 등이 단체 특성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개발·실현해 청년단체(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2023~2024년까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선발된 청년단체(기업)는 1차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2차년도에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각 시군을 소재지로 1년 이상 활동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가 청년(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구성원의 청년 비율이 50%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6개 청년단체(기업)이며, 2년간 최대 6,6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식품, 상품 관광, 교육, 문화, 공연예술, 에너지 IT, 숙박 등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 등은 공모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도는 청년단체의 수행역량, 아이템의 창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규모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도약프로젝트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도전에 보지 못했던 청년단체(기업)에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돼 청년단체(기업)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장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내달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사업 신청

전북도는 임업직불금제 사업 신청을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각 시군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mg.go.kr) 등에서 공모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조직위·국립공립공단 새만금잼버리 지원 강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과 국립공립공단(이하 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14일 서울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의실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동안 △공단지 운영하는 카라반 등의 숙박 및 공익시설 제공 △탄소중립 및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및 교류 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과정 활동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형근 이사장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및 친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국의 국립공원 가치를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행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4만3,000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 문화유산 가치 알리기’

전북지식살롱, 19일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초청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9일 전북지식살롱 제4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알리기’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박물관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전인건 관장(간송미술관)은 2014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간송문화전-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그리고 간송 전형필 선생의 수집 일화가 있는 간송미술관을 대표하는 유물을 전시했다. 이후 2019년까지 총 12차례의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리면서 문화계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한국 문화재의 소중함에 대해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와 같은 간송미술관의 행보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향유할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 세계적인 젊은 미술 팬덤 커뮤니티의 조성이라고 보고,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는 이러한 팬 커뮤니티를 만들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MZ세대와의 소통 및 커뮤니티 형성 이슈 지역 전문문화·역사에 대한 브랜딩 리뉴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등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5NqQ3D>)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새로운 전북 자문단’ 지문위원 위촉식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등 과학기술 인사 7명 위촉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제공할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북도는 14일 도청자문단 중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으로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권대형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은 기초과학, 식품공학,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주요 기관의 대표적 역할을 하는 등 대한민국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이다.

한후 도정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과 더불어 사업 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팀을 통해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건축사사무소 본시 등
공동 응모 작품이 선정
12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전북도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건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도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입상작 3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돌봄·의료·보육·교육 등)를 생활서비스(식당·마트·미용실 등)를 지원하는 전국단위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6월 전북도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건축설계공모

에 총 4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정현아)와 (주)건축사사무소 본시(대표 오지환), (주)복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오경택)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 선정은 건축 및 농촌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디자인 이용자의 편의성, 향후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607㎡규모로 건립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12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과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공간이 돼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